

월요광장

쌀의 경쟁과 미래전략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미래는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처럼 미래도 스스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반추하고 현재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뭔가 2% 부족하다. 다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과 선행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 중의 하나가 경쟁이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경쟁자의 행동에만 집중해 일희일비하여 대응하는 단순한 시각에 매몰되어 있다. 영화를 찍사라하는 철수는 앞집 돌쇠를 경쟁자로 생각하지만 정작 영화는 수녀가 되고 싶어 한다. 가발업체 시장은 대머리가 유행하면 망한다.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 쌀의 소비가 줄어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는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계속 발생할 것이다. 삼성은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서 동시에 애플은 반도체 집에서 삼성의 최대 고객사이다. 식품에 기능성이 추가되면 건강보조식품이 되며, 건강보조식품의 기능이 고도화되면 제약이 된다. 식품회사끼리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제약사와의 경쟁도 고려되어야 한다.

소리를 녹음하는 원형 매체인 레코드판은 인쇄 기술만큼 획기적인 발명품이지만 소니의 워크맨에 의해 대체되어 이제는 골동품 수준의 존재로 남아 있다. 세계적인 발명품을 사라지게 한 워크맨은 10년 남짓 살고 단명하였으며, 여기에 공헌한 mp3는 불과 몇 년 반짝하다 이제는 시장에서 존재감조차 없다.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다방을 사라지게 했던 것은 인스턴트커피이다. 그런 인스턴트커피가 커피전문점(테이크아웃) 때문에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으며, 어떤 브랜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라는 광고 카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코카콜라의 경쟁자는 펄스였으나 정작 코카콜라의 하락 주범은 건강을 코드로 등장한 웰빙 트렌드였다. 대

형마트와 전통시장(중소 유통업체 포함)이 서로 경쟁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와중에 온라인 채널에 의해 오프라인 채널 자체가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주식을 ‘쌀’이라고 연상하지만, 정작 쌀의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쌀 생산 농민들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에 힘겨워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아픔은 흉년일 때도 풍년일 때도 정도와 양상의 차이일 뿐 매년 계속되고 있다. 매년 이 계절이 되면 정부와 한바탕 싸우는 일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연례행사로 보인다. 국민의 눈에는 쌀의 경쟁자가 정부로 보인다. 직불금 덕에 정부로부터 일정 소득을 보장받고, 시장에서 팔다 남은 쌀도 정부에서 사 주고 있다. 세금으로 쌀 산업을 떠받치는 구조로 굴러가다 보니 결국 정부와 농민이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 시발점은 쌀의 소비를 감소시킨 경쟁의 본질적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1인당 품목별 곡물 소비량과 고기·채소의 그것과 비교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 달리 빵은 쌀 소비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았다. 라면은 쌀의 대체재 역할을 하지만 최근 에 라면 소비 자체가 줄고 있다.

고기가 쌀을 대체하고 있다. 고기 섭취량이 서구 국가에 비해 아직 높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채소는 종류에 따라 쌀의 소비와 함께 증감이 혼재되어 있다. 쌀의 소비가 감소하면 반찬의 소비도 감소할 것이며, 특히 나물 종류의 채소는 쌀과 보완재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반면에 고기의 소비가 늘면 고기와 함께 먹는 찜 종류의 채소는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 같이 나눠 쓰려면 더 가지려는 욕망을 없애든지 누구든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가질 수 없는 한 경쟁은 늘 존재한다. 경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가끔씩 ‘배려와 나눔’이란 아름다운 말로 나타내지만, 이는 재원(財源)이라는 현실을 약역으로 동반시킨다.

쌀의 문제를 경쟁의 단위, 경계, 구조, 속도와 같은 본질에서 통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우리 지역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1차 산업 전체에 해당된다. 경쟁의 본질에 기초한 우리 지역 내 1차산업의 미래 전략을 기대한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조칼럼

누군가의 ‘그 한 사람’



문 하 경  
광주지검 검사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서 대규모의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연구자들은 1955년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하여 한 인간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찾고자 했다.

연구 결과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결혼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으며, 부모의 성격이나 정신건강에 결함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중 새롭게 발견된 내용이 있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 중 3분의 1인 72명이 출생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 72명의 공통점은 바로 ‘그 한 사람’이 존재했다는 점이었다.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 주고 받아주는 즉 사랑을 베푸는 ‘그 한 사람’이 존재했을 때 아이는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많은 범죄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적절한 형을 구형하기 위하여 그들의 성장과정 및 현재의 환경, 범죄를 저지른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 대부분이 성장과정이나 범죄를 저지른 당시 주변에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결국, 앞의 연구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으나, 필자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범죄자들에게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도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웠던 적이 많았다.

이러한 ‘그 한 사람’은 대부분 가족이었지만, 가족에 한정된 개념이 아닌 주변의 이웃, 지역사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부모로부터 버려져서 갈 곳을 잃은 아이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청소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범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회 청소년생...

그들은 지금 자신에게 “넌 할 수 있어.”,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그 한 사람’을 애써게 찾고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 이웃들에게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훌륭하게 성장한 그들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의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범죄가 없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이다. 오늘도 그런 날을 꿈꾸면서 하루터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기 고

노벨 과학상, 우리의 아쉬움은 곧 채워진다



안 병 하  
광주과학기술원 명예교수·전 부총장

올해 역시 노벨 과학상에서, 일본과 한국은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일본은 지난 두 해에 걸쳐 5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에 이어, 이번에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한 쾌거를 이루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줄 날은 언제쯤일지 참으로 답답하지만, 우리의 밝은 내일을 기대해 본다.

우리는 노벨과학상에 왜 목말라야 하는가? 과학의 발전이 이 세상을 풍요사회, 선과 정의의 사회로 진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다. 노벨 과학상은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연구에 매진하는 많은 과학자 가운데 최고의 성과를 낸 과학자를 찾아 수상한다. 따라서, 우리 과학계도 이제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라가 있음을 실증해 주어야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을 통해 국가 생존과 번영을 담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세 분야 노벨과학상은 모두 미시 세계 현상을 규명한 연구 성과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생리학·의학상은 일본 도교궁 다 오스미 교수가 밝힌 세포의 재생 메커니즘(자가포식 현상)이 암과 치매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벨 물리학상은 미시의 원자를 평면에 배열하여 극저온으로 만들었을 때 평소와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한 3명의 과학자가 수상했다. 그들은 영국 출신으로서, 미국 대학에서의 연구를 통해, 물질이 기묘한 상태로 존재하는 새로운 세상을 인류에게 보여 주었

다. 이들이 밝혀낸 신기한 현상을 이용해 인류에게 필요한 양자컴퓨터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감을 주고 있다.

노벨 화학상은 ‘분자기계’ 개발에 기여한 프랑스, 미국 및 네덜란드 대학에서 연구 중인 교수 3명에게 주어졌다. ‘분자기계’(molecular machine)란 우리 몸의 생리적 현상을 모방해 분자 수준에서 그 기능을 기계적으로 재현한 것으로서, 신 개념 센서,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일본은 1949년 이래, 이번 수상까지 22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도 노벨 과학상 수상이 전무한 참으로 참담한 실적이지만, 우리 과학계가 늦게나마 착실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으니 크게 기대해도 좋을리라 생각된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때인 19세기 후반부터 기초과학에 공을 들여, 국내 과학기술 연구환경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적

지식역량 강화 등의 토대를 쌓아 왔다. 이러한 바탕 아래, 정부의 기초과학 연구 지원정책이 장기간 일관성 있게 추진됨으로써, 갈수록 시너지 효과를 크게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구나 많은 기초과학자들이 추종연구가 아닌 창의적 모험적 선도연구에서의 한 우물파기 식 자세가 돋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이제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중심으로 출발 단계라 할 수 있어 좀 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생애 주기별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연구자 중심의 장기적 연구 환경 마련에 노력하고 있어 그 기대감이 크다.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연구인력에 대한 안정적·장기적 연구 지원 체계 구축 등은 가까운 장래에 큰 성과로 이어지리라 믿어진다. 이에 따라, 노벨 과학상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은 곧 채워지지 않을까?

엇인지,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시기에 피해자의 관심은 타인을 향해 있다.

은근한 따돌림은 형사상 처벌이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는 알고 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부모의 애정어린 관심과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배려, 그리고 한 명의 친구를 외면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친구들의 손길은 한 명의 아이를 ‘귀여운 여인’ 속 가짜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을 느끼는 아이로 만들 수 있다.

▲김미령·목포시 용당로 73

社 說

교묘한 편법으로 ‘전관예우’ 혜택 누렸더니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이들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법원이 유리하게 처리해 주는 비리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법에 ‘판사 퇴직자 등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사이에 광주 지역 법원에서 퇴직한 부장판사 이상 ‘향판 전관’ 3명이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사건을 제한 없이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이들 전관 변호사 3명의 개업 후 1년 동안 형사사건 판결문 241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어떻게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었을까. 이들 향판 전관 3명은 퇴직 전 1년 동안 광주지법 본원이 아니라 해남·장흥 지원장 등으로 근무함으로써 ‘수임 제한’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

갔다. 지원장 자리를 ‘수임 제한 회피처’로 이용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이들 전관 변호사 3명이 개업 뒤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2심에서 감형된 사건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 40% 이상 원심이 법물판단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잘못 파악한 점이 없는데도 2심 법원이 감형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를 선고 비율도 일반 변호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니 전관예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선배였거나 상사였던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현직 검사나 판사들이 우대해 주는 게 일반화되면 변호사 간 공정 경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전관 수임 제한 규정을 파하라고 지원장으로 근무하다 개업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 법 감정 거스른 전기요금 누진제 판결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4년 처음 제기된 소송은 올 여름 폭염이 불러온 ‘전기료 폭탄’ 공포와 맞물려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한참 멀어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누진제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누진제는 전기 요금 결정 원칙에 합당하고,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한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하지만 법원이 지나치게 법리적 해석에만 치우친 것은 아쉽다. 전기료 산정 약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전기를 독점공급하는 한전이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든 조항조차 모두 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8500여 명의 주민 참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약관인가 당시 총괄 원가와 누진 구간 및 누진율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 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비싸진다.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게 된다.

한전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누진 구간을 대폭 축소하고, 구간 간 단가의 급격한 차이를 줄이는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론 무마에만 급급해 어쩔쩔 넘어가려 했다가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무더위나 강추위에 전기를 얼마나 더 쓰더라도 지금처럼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 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속 쓰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위에 타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위암의 전조 현상으로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증상은 위 점막이 손상되고, 손상된 위 점막에 강한 위산이 침투해서 나타나는데, 고통의 빈도수나 정도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위암을 의심해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변을 봤는데 다시 가고 싶은 느낌이 있는 잔변 증상이 있거나 검붉은 색의 혈변, 또는 끈끈한 점액변 등은 대장암의 전조로 볼 수 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풍이 있고, 호흡 곤란이 느껴지면 심근경색을 의심해 신속히 병원을 찾아야 한다. 또 갑자기 심한 두통이 있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 또는 중심 잡기가 힘들고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등의 증상도 뇌졸중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초기에는 침침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단순 증상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선과 형상이 굵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면 실명의 위험이 높은 황반변성의 증상으로 의심해야 한다. 현대에는 의학적으로 입

증된 전조 증상들이지만 불과 수십여 년 전만 해도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탓에 막연히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울산 대지진 발생 한 달 만에 46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지진 전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천 마리의 지렁이가 떼를 지어 있는 부산 지렁이 떼 현상, 울산 태화강에서 발견된 송어 떼 일렬 이동 등은 지진 전조 증상 등의 제목으로 최근 각종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널리 퍼진 상태다. 하지만 동물의 집단 행동이 지진과 관련돼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게 지금까지 과학계의 입장이다.

인간이 정자와 난자의 결합물이라는 사실은 초등학교도 안다. 이 오묘한 신비도 수많은 연구 끝에 과학적 사실이 되었다. 동물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은 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동물과 자연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알게 되면 공포는 사라진다.

/채희종 사회2부장chae@

교실 따돌림 없도록 친구들의 관심 필요

러시아 문호 체호프의 ‘귀여운 여인’에는 ‘올렌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한다. 소설 속 그녀는 매우 사랑스럽고 또한 끊임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런데 소설을 찬찬히 보면 그 사랑의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또 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만 행동한다. 마치 영화 ‘아바타’처럼 말이다. 작가

인 체호프는 소설 속 그녀를 행복한 사람으로 표현한다.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누군가를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저 사랑스럽게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은 그녀가 과거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나는 소설 속 여주인공의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 중·고등학생으로, 공간은 현재

의 학교 교실로 옮겨놓아 보았다.

그녀는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욕을 하거나 때리지 않는다. 다만, 그녀가 무리 속에 끼여들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한다. 외롭고 쓸쓸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그녀는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고 눈치를 보며 교실 속을 헤맨다.

청소년기의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보이지 않는 외상을 남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